

「작은 구름」의 제목과 영웅담론*

최 석 무

I

15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8번째 이야기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가 무척 애착을 가진 작품이다. 작품이 완성된 1906년에 동생 스타니슬라우스(Stanislaus)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이스는 “「작은 구름」의 한 페이지가 나의 모든 시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준다”(SL 121)고 말하였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이 출판되는 과정 속에서 출판업자인 그랜트 라차아즈(Grant Richards)와 많은 갈등을 가졌지만, 이 단편에 대해서는 “반대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SL 89)이라고 단언한다. 「작은 구름」에 대해 조이스의 이러한 애착과 자신감은 이 작품이 완성도가 높은 작품임을 보여준다.

「작은 구름」은 『더블린 사람들』에 수록된 단편소설 중에서 비교적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온 작품이다. 특히, 이들 비평에서 주목할 내용은 제목인 「작은 구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의 “제목이나 제명(epigraph)”은 “독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시적인 논평”(Booth 298)이기에 제목을 통해 작품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문학연구에서 흔히 사용된다. 이 단편의 경우에 조이스가 오랜 숙고 끝에 이 단편의 제목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제목은 특별한 주목을 끈다. 그는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를 제외하고 제목을 미리 밝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제목이 결정되자마자 작품 안내서처럼 곧바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Spoo 402). 데이비드 와이어(David Weir)가 지적하듯이, 「작은 구름」은 “『더블린 사람들』에 있는 단편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제목”을 가지고 있다(“New Light” 301-02). 와이어는 1980년에 쓴 논문에서 제목에 대한 학자들의 대답 중에서 “완전히 만족스러운 해석은 없다”고 말한다(“New Light” 301). 토마스 오그레이디(Thomas B. O’Grady)는 1991년에 쓴 논문에서 지난 30년간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해 비평가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였음을 지적한다. 그 후에도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각기 다른 해석을 한다. 작품제목이 상징하는 바가 작품 속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많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제목의 의미와 작품 속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평가들이 이 제목을 통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배경인 된 아일랜드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제목이 작품에서 가진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와이어는 1980년에 쓴 논문에서 조이스 초기비평가들이 제목인 「작은 구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작은 구름”을 바람신에 해당하는 갤러허(Gallaher) 때문에 날아간 리틀 찬들러(Little Chandler), 찬들러에게 그림자를 드리우는 갤러허, 또는 그녀 남편의 인생을 암담하게 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찬들러의 아내로 다양하게 보았다. 또한 제목을 성경의 <열왕기상>(“1 Kings”) 18장 44절이나 바이런(Byron)의 「칠런의 죄수」(“Prisoner of Chillon”)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았다. (“New Light” 301)

여기서 「작은 구름」의 제목에 대한 두 가지 비평 경향을 볼 수 있다. 하나는 특정한 인물을 “작은 구름”에 비유하는 비평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나 시와 같은 문헌에서 인용출처를 찾는 작업이다. 이러한 비평조류는 이후의 비평가들이 즐겨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먼저, 특정한 인물을 “작은 구름”에 비유하는 비평가로서 존 고든(John Gordon)을 들 수 있다. 그는 제목은 챌들러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챌들러는 진짜 이름이 토미 챌들러(Tommy Chandler)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계속 별명으로 화자에 의해 언급된다. 그 결과 챌들러는 “아주 작고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라는 상징적인 지위를 부여받는다(169). 챌들러는 구름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고든이 지적하듯이, 챌들러는 “처음에는 ‘운명에 저항하지 않는’ 즉, 표류의 철학”(a philosophy of drift)을 신봉했다(169). 그는 시를 쓰면 “우울한 분위기의 시 때문에 켈틱파”(D 68-69)가 되고자 하는데, 켈틱파는 “안개가 낀 듯한”(misty) 시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 구름과 관련이 있다(Gordon 169).

반면에 데이비드 와이어는 챌들러의 아내 애니(Annie)와 아이가 구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구름은 부정적이며 여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챌들러는 남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제목의 구름은 챌들러의 아내”로 볼 수 있다(“New Light” 301). 애니는 “챌들러의 남성적 자아의 불을 약하게 하거나 꺼트려 버린다”(“New Light” 301). 챌들러의 아이는 “꼬마, 작은 애, 어린 양”(a little boy, little man, little lamb)으로 언급되는데 이는 “제목을 생각나게 한다”(“New Light” 302). 그렇지만 와이어는 챌들러의 아내와 아이가 구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구름은 암시적이기에 한 인물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New Light” 302). 그리고 “구름은 「죽은 사람들」(“The Dead”)에 등장하는 브라운(Browne)처럼 어디에나 있다”고 결론 내린다(“New Light” 302).

아이드와 마하피(Marian Eide and Vicki Mahaffey)는 챌들러의 아들이 양(lamb)으로 불리는 것에 주목하면서 ‘lamb’의 어원을 분석하면서 아이가 구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일랜드어로 ‘lamb’은 “언어적 연상 작용을 야기하여 아이를 ‘lamp’와 ‘a little cloud’로 보게 한다”(174). 즉, ‘lamb’의 다른 형태의 단어가 ‘lamp’이고 이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단어인 ‘lampa’를 상기시키고 이는 보통 ‘lamp’라는 의미인데 (잘 쓰이지는 않지만) ‘cloud’를 의미하기도 한다”(174).

제목이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다수의 견해는 성경의 <열왕기상> 18장

44절과 45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 . .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는 구절에 주목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Baal)을 섬기게 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를 받는다. 이 성경구절은 엘리야의 기도로써 마침내 비가 내리는 장면이다. 턴달(Tindall)은 성경에서 제목의 유래를 찾은 첫 비평가이다. 그러나 그는 구름이 비가 올 첫 번째 징조라는 상황은 “채들러의 경우에 적용하기에 명확하지 않다. 정확히 그의 작은 구름은 무엇이며 이는 무엇을 예견하는가? 어둠을 증가시키고 비를 모으는 것? 어두워진 후에 그것은 채들러의 개인적인 가뭄, 더 나아가 보편적인 계몽을 통해 더블린의 가뭄의 끝을 약속하는가?”(27) 라고 하면서 성경의 가뭄해결의 메시지를 이 작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 작품에는 비가 내리거나 희망을 상징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없기에 턴달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

반면에 고든은 기상학적으로 구름의 의미가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채들러의 “하얀 작은 손이 손 만한 엘리야의 구름을 회상”한다고 말하고, 채들러를 묘사하는 단어인 “하얀, 연약한, 조용한, 세련된”(white, fragile, quiet, refined)이 작은 구름을 상기시킨다고 말한다(168-69). 이 이야기는 “놀랄 정도로 체계적이며 글자 그대로 분위기를 날씨”로 표현하고 있다. 즉, “노여움이 태풍이며, 미소가 햇살”에 해당한다(172). 고든은 이 작품에서 “감정이 구름”처럼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감정과 구름은 보이지 않게 시작했다가 차차 커지고, 매우 무거워지고, 마침내 방출하면서 없어진다(172). 그의 이러한 해석은 조이스가 성경 이야기를 의식하면서 작품을 집필하였음을 보여준다.

잭슨 코우프(Jackson Cope)는 이 단편이 성경의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말라기> (“Malachi”)서의 엘리야를 인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엘리야 시대의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이 작품에서는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황무지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더러운 아이들, 해충 같은 삶, 가난한 나지막한 집, 한 무리의 부랑배들을 들면서 더블린은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 사막”이라고 주장한다(17).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심의 가책의 눈물을 가져온다. 눈물은 “아이러니하게도 비”를 연상시킨다. “엘리야의 점점 커지는 구름이 희망 없는 눈물로 대치”되고 있다(19). 코우프는 “채들러/엘리야가

아이에게 소리치는 장면”은 <말라기>서의 다음 구절에서 부자관계를 상기시키다고 말한다(19).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6절)

챤들러는 엘리야이면서 아이의 아버지이다. 그러나 그는 부자관계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지도 못한다.

아이드와 마하피는 “작은 구름”의 여러 의미를 성경에서 찾고 있다. 그들이 따르면 “작은 구름”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표로써 (엘리야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고난과 (가뭄을 종결시키므로) 구원을 동시에 가져 온다”(166). “작은 구름”은 또한 낮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으며, 사람들이 모든 것의 근원을 인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동원한 신의 자그마한 대리인이다”(187). 그러나 이 연구는 “작은 구름”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조이스의 작품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제목은 성경이 아닌 문헌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메리 레이놀즈(Mary Reynolds)는 단테(Dante)의 『신곡』(*The Divine Comedy*), 「연옥」(*The Inferno*)편, Canto 26에서 제목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160). 단테는 “작은 구름”(si come nuvoletta)을 “율리시스(Ulysses) 장군과 가짜 충고자들을 감추는 불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다(160). 레이놀즈는 조이스의 단편에서 갤러허의 “잘못된 충고가 리틀 챤들러의 삶을 망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갤러허를 가짜 충고자로 여긴다(161). 특히, 갤러허가 “담배연기(the clouds of smoke)에서 나오는”(D 73) 모습을 통해 단테의 이야기와의 유사성을 찾는다. 반면에 로버트 스푸(Robert Spoo)는 구그릴모 페레로(Guglielmo Ferrero)의 『신생 유럽』(*Young Europe*)의 다음 구절에서 제목의 기원을 찾는다.

무한한 삶의 현실 앞에서 인간정신이 기획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과 같은가? 끝없는 하늘 위에 있는 작은 구름: 한 입김이 그것을 흩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의 눈도 그것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재인용 Spoo

402-03)

스푸는 조이스의 단편에 페레로의 위 이론을 적용하여 작품을 재해석하였다. “아이의 호느낌과 애니의 분노와 같은 그의 집의 현실적 상황은 페레로의 메타포에서의 바람처럼 그의 꿈을 불어 날려버린다”(403). 레이놀즈와 스푸가 제시한 이러한 새로운 출처는 조이스의 단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스푸의 이러한 해석은 「작은 구름」의 한 단면을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지만,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와 부분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데이비드 와이어가 1980년에 요약한 「작은 구름」의 제목에 대한 두 가지 비평 경향은 오늘날에도 비평가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와이어가 지적하지 않은 연구경향도 있다. ‘작은 구름’의 의미는 은유(metaphor)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비평은 ‘작은 구름’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착안한 것이다.

이미 1954년에 조이스의 동생인 스테니슬라우스 조이스는 이 작품을 “성공했고 부끄러움이 없는 독신남이 행복한 결혼생활에 작은 구름을 던지고 불협화음을 야기하는” 이야기라고 말하였다(526). 이렇게 작은 구름을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비평은 그 후 비평가들이 꾸준히 사용하였다. 피크(C. H. Peake)는 제목이 “채들러의 체념해 평온해진 마음에 드리워져 지나가는 작은 구름에 불과한 일시적인 분노나 감정의 폭발”(31)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마고 노리스(Margot Norris)는 ‘작은 구름’이 은유로 사용된 경우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이 작품의 초반부는 시간과 장소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작은 구름’처럼) 독자를 전적으로 떠다니게 내버려 둔다”(109). 깬러허와 채들러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판단이나 평가기준은 ‘작은 구름’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가능성이나 기준이나 감정을 결정할 수 있다”(109). 채들러에게 “드리워진 ‘작은 구름’ 중 하나는 작다는 콤플렉스(cloud of ‘littleness’)이다”(111). 노리스는 이 작품이 제기하는 의문도 ‘작은 구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아내의 아름다운 눈과 집에 있는 예쁜 가구를 ‘천박하게’ 보게 만든 깬러허의 존재는 결혼생활에 드리워진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구름—작은 구름—인가?”(118) 이 작품에서 일어난 일은 “떨쩍했을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드리워진 ‘작은 구름’에 불과한가?”(120) 이 모든 예에서 노리스는 ‘작은 구름’을 부정적인 요소를 대

변하는 은유로 사용하고 있다.

‘작은 구름’의 의미에 대한 위 선행연구는 이 작품의 해석이 얼마나 다양한지 보여준다. 이는 조이스가 이 작품에 만족감을 느낀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의 한계도 있다. 이들 연구는 작품의 배경이 된 아일랜드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아일랜드의 배경을 고려하여 성경이야기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성경이야기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평가들이 이 작품을 해석한 틀이며, 이 틀을 통해 작품 전체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필자는 조이스가 이 작품을 쓸 때 성경이야기를 기초로 다시 쓰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챌들러가 일하는 곳이 “킹즈인”(King’s Inns)(D 65)인데, 조이스는 이 회사이름 속에 성경의 출처인 <열왕기상> (“1 Kings”)을 숨겨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II

성경에서 엘리야는 영웅이다. 그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친다. 이 대결은 『피네간의 경야』에서 “성 패트릭(St. Patrick)과 드루이드(the Druid)의 대결”에서 재현될 정도로 조이스는 많은 관심을 가졌다(Fargnoli and Gillespie 60).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고통 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를 가져온다. 그리고 바알 신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한다. 「작은 구름」이 이러한 성경의 영웅담에서 유래하였다면 주인공 챌들러가 엘리야와 같은 영웅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조이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물을 바꾸었는지 아일랜드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통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조이스가 작품 활동을 한 20세기 초는 예이츠(W. B. Yeats)를 비롯한 문예부흥론자(Revivalist)들이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을 통해 아일랜드 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한 시기였다. 문예부흥론자들은 과거 아일랜드 영웅숭배를 통해 아일랜드 민족이 영국민족보다 우수함을 보이려했다. 조이스는 이러한 문예부흥론자들의 영웅숭배를 조롱하는 글쓰기를 하였다. 조이스는 이들의 영웅숭배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

다. 리처드 커어니(Richard Kearney)가 주장하듯이, “신화는 이데올로기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상징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66). 영국계 아일랜드인이 주축이 된 문예부흥론자들은 아일랜드 순교자를 영웅시하여 아일랜드인의 단합을 역설하였다. 20세기 전후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아일랜드 사람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던 시대였다. 영국계 아일랜드인들은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이 이제까지 향유해왔던 지배계층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자 묘책이 필요했다. 그들의 “과거신화 사용은 권력을 잃고 있는 계층이 문화적, 지적 위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수단이었다”(Platt 739). 조이스 비평가들은 주로 『율리시스』 연구를 통해 조이스가 영웅담론에 도전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와트슨(Watson)이 주장하듯이, 『율리시스』(Ulysses)는 “영웅과 영웅승배에 젖어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철저히 반영웅적인 이야기이다”(241). 조이스 자신도 “영웅주의에 대한 모든 것은 현재도 과거에도 완전한 거짓말임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SL 54). 따라서 「작은 구름」도 조이스가 얼마나 영웅담론에 도전하고 있는지 반영웅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

「작은 구름」을 영웅담을 조롱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챈들러가 문예부흥론자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챈들러는 “영국 비평가들은 아마도 그의 시의 우울한 음조 때문에 그를 켈틱파 시인으로 인식할 것이다”(D 68-69)라고 생각한다. 켈틱파 시인들은 “아일랜드 과거의 문화, 언어, 민담, 그리고 신화를 부활하는데 흥미가 있었다”(Gifford 69). 챈들러도 “그의 이름이 좀 더 아일랜드적이 아니라서 언짢아한다”(D 69). 그는 “성 앞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Malone]을 넣는 것이 좋을 텐데: 토마스 멀로운 챈들러, 더 좋은 것은 T. 멀로운 챈들러”(D 69)라고 생각한다. 챈들러가 후자의 이름을 선호하는 것은 “아일랜드 이름인 멀로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Potts 84). 챈들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의 시의 우울한 음조는 「훔쳐간 아이」(‘The Stolen Child’)에서 발견되는 예이츠 시의 특징”이다(Potts 84). 조이스는 챈들러를 문예부흥론자를 추종하는 시인으로 등장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예부흥론자들이 주장하는 영웅담론에 도전한다.

구체적으로 이 작품의 배경은 성경이야기 속의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코우프는 성경에서 엘리야 시대의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묘사하기 위해 더블린을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 사막”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7). 사실, 이 작품은 사막과 같은 환경보다는 사막에

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잘 보여준다. 그 예로 더블린에 사는 찰들러와 애니는 극도의 갈증을 느낀다.

찰들러는 “보통 많이 안 마셔”(D 70)라고 말하지만, 갤러허를 만나서는 비교적 많이 마신다. 갤러허가 “큰 금시계를 꺼내서 보고서,” “이게 마지막이지? 나는 약속이 있어서”(D 75)라고 꺼리는 반응을 듣게 되도 찰들러는 “약속을 다짐하기 위해, 한 잔만 더하지”(D 75)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찰들러의 습관이 독특하다. 그는 위스키에 물을 많이 넣어 “아주 연하게 해서”(D 70) 마신다. 이 이야기에서는 물을 많이 첨가하는 행위를 일종의 갈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런던에 사는 갤러허는 위스키에 물을 전혀 타지 않고 “원액 그대로 마신다”(D 70). 그리고 그는 아무 술이나 마실 정도로 목마르지 않다. 그는 마지막 술잔에 “입으로 맛을 보는 행위를 흉내 내면서 얼굴을 찡그린다”(D 77). 그리고 “약간 김이 빠진 것 같네”(D 77)라고 말하면서 마시기를 주저한다. 찰들러와 같이 사는 애니도 목이 마르다. 그녀는 “차를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가도 모퉁이에 있는 가게가 문을 닫을 때가 가까이 되자 4분의 1 파운드의 차와 2 파운드의 설탕을 사러 가기로 결심한다”(D 77). 이는 단적으로 그녀가 목이 너무 말라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고든이 지적하듯이, 이 이야기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가장 축축한 이야기”이다(17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찰들러의 메마른(dry 또는 monotonous) 삶 또한 사막과 같은 삭막한 삶을 대변한다. 더블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다”(D 68). 그리고 더블린은 유럽 다른 지역에서 맛 볼 수 있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단조로운”(jog-along)(D 73) 곳이다. 찰들러는 갤러허에게서 파리, 런던, 베를린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럽고 비도덕적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메마른 삶을 되돌아본다. 특히, 갤러허의 여자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내에 대해 생각한다. 그의 아내를 평가한 다음 내용은 흥미롭다.

그는 사진 속의 눈을 냉담하게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 눈은 냉담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물론 그 눈은 예뻐다, 그리고 얼굴도 예뻐다. 그러나 그 얼굴 속에 뭔가 모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왜 무의식적이고 숙녀 같지? 차분한 눈이 그를 화나게 했다. 그 눈은 그를 화나게 했고 도전했다. 그 속에 정열도 없고 황홀도 없었다. 그는 갤러허가 돈 많은 유대 여인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을

생각했다. 그는 생각했다. 저 까만 동양의 눈은 얼마나 정열로, 관능적인 욕망으로 넘치는가? (D 78)

갤러허의 아내의 외모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많다. 그녀는 예쁜 눈과 얼굴, 그리고 숙녀 같은, 차분한 모습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챌들러에게 있어 ‘숙녀같은 차분한’ 모습의 여성은 일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정형화된 삶을 사는 여성을 의미한다. 그런 여성과의 삶은 단조롭고 변화가 없다. 그는 아내와 정반대 이미지의 여성을 갤러허가 말한 유대 여인에게서 찾고 있다. 유대 여성은 성적인 정열과 신비스러움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적 시각이다. 앞서 갤러허는 “돈이 썩어나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부유한 독일인과 유대인”(D 77) 여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챌들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유대여성이다. 이는 동양여성이 성적인 신비감을 지녔다고 서구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챌들러는 성적 매력이 없는 아내에 매여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 챌들러는 이러한 자신을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D 80)라 생각한다. 챌들러와 달리 갤러허는 “한 여자에 얽매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D 77). 그는 많은 여성과 인생을 즐기려 한다.

챌들러가 자신을 “죄수”(D 80)로 묘사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웅처럼 행동하지도 않는다. 갤러허를 만나면 자신의 시를 “런던 신문에 기고해 달라고”(D 68) 부탁할 작정이었으나, 그를 만나자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도 못한다. 그는 소심한 인물이다. 다음은 그가 길을 걸어가는 습관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소심한지 알 수 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지나갔다. 심지어 낮에도 거리를 빨리 걸어가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밤늦게 시내에 혼자 있을 때 그는 두려움에 흥분된 채 재빨리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이 두려움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좁은 길을 선택했다. 대담하게 앞으로 걸어갈 때, 발걸음 주변에 펼쳐진 침묵이 그를 괴롭혔다. 말없이 배회하는 사람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때로는 흘러나오는 낮은 웃음소리가 그를 나뭇잎처럼 떨게 만들었다. (D 67)

챌들러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그는 갤러허를 만나러 가면서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우등하다고 느낀다”(D 68). 런던에서 성공한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잠시나마 그의 열등감을 잊게 한 것이다. 챈들러와 같은 피지배민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제국의 중심으로] 떠나야 한다”(D 68)고 생각한다. 그는 “우울함이 그의 지배적인 기질이다”(D 68)고 하는데 이 역시 피지배민들이 가지게 되는 열등감에 기인한다. 조이스는 영국의 식민지인 아일랜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영웅과 거리가 먼 인물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챈들러는 소심하다. 아내에게 시를 읽어 주고 싶어 하지만, “수줍음이 항상 그를 제지 한다”(D 66). 그는 약속 장소인 콜레스(Corless’s)에 도착해서도, “문 앞에 멈추어 서서 들어갈지 결정을 하지 못한다”(D 69). 특히, 챈들러가 아내의 블라우스를 사는 다음 장면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날 그는 얼마나 고생했든가! 상점에 손님이 없을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다. 점원 아가씨가 자기 앞에 여성용 블라우스를 쌓고 있는 동안 카운트에 서서 태연한 척 했다. 데스크에 돈을 지불했는데 잔돈을 받는 것을 깜박 잊어 버려 출납원이 다시 불렀다.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고 하면서 상점을 떠났다. 그때야 그는 꾸러미가 잘 묶여졌는지 살펴보았다. (D 78)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스는 성경의 영웅담을 기초로 이 작품을 쓰고 있기에 챈들러에게서 영웅적인 모습을 연상시키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챈들러는 엘리야보다 율리시스 장군을 상기시킨다. 테니스(Alfred Lord Tennyson)은 「율리시스」(“Ulysses”)라는 시에서 고향에 정주하지 않고 모험을 하기 위해 떠나고자 하는 율리시스 장군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 율리시스는 “여행을 그만두고 쉴 수가 없다. 인생을 찌꺼기까지 마시려 한다”(6-7행). 챈들러는 율리시스처럼 모험을 꿈꾼다. 그는 “이 조그마한 집에서 도망칠 수 없을까? 꺾리처럼 용감하게 살기엔 너무 늦었는가? 런던에 갈 수 있을까?”(D 79)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테니스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더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서는 것은 결코 너무 늦지 않다”(57행)고 말한다. 그러나 챈들러는 “아직 지불하지 않은 가구대금이 있어”(D 79)라는 다소 엉뚱하고 우스운 생각을 하면서 모험에 나서지 못한다. 영웅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소심한 시민의 모습으로 되 돌아온 것이다. 초반부에는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

고, 이것은 오랜 세월이 그에게 물려준 지혜의 집이다”(D 66)라고 다소 철학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이 부분은 코믹하게 표현되어 있어 챌들러는 영웅과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챌들러는 영웅이기는커녕 남성성이 의심받는 인물이다. 갤러허가 챌들러에게 자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다음 장면은 좋은 예이다.

“에 있어?” 이그너티우스 갤러허가 물었다.

리틀 챌들러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하나 있어.” 라고 그는 대답했다.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야.”

이그너티우스 갤러허는 친구의 등을 찰싹 소리 나게 쳤다.

“브라보.” 그는 말했다. “타미, 의심할 여지가 없지.”

리틀 챌들러는 미소를 지으면서 잔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이처럼 하얀 세 개의 앞 이빨로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D 74)

먼저, 자녀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줍어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은 그의 남성성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챌들러가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하자 갤러허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라고 말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그의 남성성이 의심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 행에서 화자는 챌들러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아이처럼”(childishly)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가 성인/남성이 아니라 아이와 같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챌들러 자신도 자신의 문제점이 “소심한 것”임을 알고 “남성다움을 입증하려고 한다”(D 76). 사실, 이 단편은 챌들러의 남성성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는 “손수건에 향수를 정성껏 뿌리고,” “손톱의 반달모양”을 잘 관리하는 등 여성적 특징을 소유한다. 그리고 “웃을 때에는 아이와 같은 하얀 이빨을 보인다”(D 65). 끝 장면에서 그는 자신의 우는 아이를 달래지도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다. 조이스는 반영웅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챌들러는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숭배하는 인물이다. 성경이야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간의 대결이듯이, 조이스의 이야기도 기독교인과 이교도간의 대결을 다루고 있다. 챌들러는 갤러허가 술을 많이 마셔 숙취가 있던 “일요일 아침에 설교를 하던 심각한 사람”(D 71)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D 71)이다. 반면에 갤러허는 무랑

루즈(Moulin Rouge)뿐만 아니라 많은 보헤미안 카페(Bohemian cafes)에 가서 “화끈한 것”(Hot stuff)(D 71)을 보고 온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는 “해외에서 만연하는 부패”나 “많은 수도에서 일어나는 악행들”에 대해 들어봤고 “일부는 직접경험을 했다”(D 73).

갤러허의 이름 이그너티우스는 이그너티우스 로올라(Ignatius Loyola)를 상기시킨다. 그들은 고향을 떠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로올라는 파리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스페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갤러허는 아일랜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런던에 가서 성공하였다”(Torchiana 130). 그러나 로올라와 갤러허의 파리에서의 생활은 정반대이다. 로올라에게 파리는 선교활동의 공간이고 갤러허에게 파리는 향락의 장소이다. 특히, 갤러허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는 돈과 결혼하려 한다. 그녀는 은행에 돈이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적합한 신붓감이 아니다”(D 76)고 말한다. 즉, 그는 부의 신인 맘몬(Mammon)을 숭배하는 이교도로 등장한다.

그러면 그 둘의 대결은 어떠한가? 성경에서처럼 캔들러/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가져오고 비를 내리게 하는가? 조이스의 단편 초반부에 등장하는 “늦가을 지는 해의 광채”와 “부드러운 황금빛 소나기”(D 65)는 비가 오지 않는 성경이야기를 회상하게 한다. 그러나 끝부분에 비가 올 가망성은 없다. 캔들러가 읽게 되는 바이런(Byron)의 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암시한다. “바람은 자고,” “숲속에는 서풍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D 79).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서풍은 비를 가져온다. 서풍이 없기에 비가 내릴 것 같지 않다.

조이스는 이 작품의 결말을 아이러니하게 처리하고 있다. 끝에 비는 오지 않지만, 갤러허와 그의 아들의 눈물이 끝 장면을 가득 채운다. 비 대신에 눈물을 등장시키면서, 조이스는 성경이야기에 나타나는 영웅담을 회화화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결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캔들러는 갤러허의 도움으로 자신의 시가 런던 신문에 출판되면 시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조그마한 희망”(infant hope)(D 68)을 가진다. 그러나 갤러허를 만나서는 시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않는다. 시인이 되는 것은 커녕,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고 시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황이다. 캔들러의 아이는 “세상의 어린 양”(lamb of the world)(D 81)으로 구세주를 연상시키지만, 그는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캔들러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임을 깨닫

게 한다(Weir, “Meditation Structure” 86). 챌들러와 헤어진 후 갤러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독자는 챌들러에겐 희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IV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작은 구름」의 제목은 성경의 영웅담론을 생각하고 작품을 읽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성경이야기의 영웅 엘리야는 조이스의 작품에서 반영웅적인 인물인 챌들러로 등장한다. 엘리야는 가뭄을 해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믿게 인도하는 영웅이지만, 챌들러는 소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반영웅적인 인물이다. 챌들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지만, 갤러허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돕지 못한다. 그는 가뭄 속에서 사는 것처럼 갈증을 느끼며 단조롭고 메마른 삶을 살아간다. 그는 영웅적인 면이 없고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이도 돌보지 못하여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남성성이 의심되는 인물이다. 앞으로의 어떤 변화도 그에게 예상되지 않는다.

조이스는 챌들러라는 반영웅적인 인물을 통해 성경의 영웅담에 도전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조이스와 같은 피식민국가의 작가에게 있어서 서구의 영웅담론을 해체하는 글쓰기는 중요하다. 식민지배 국가들은 영웅담론을 통해 젊은이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게 독려하려 했다. 조이스의 반영웅담론은 이러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다. 조이스의 반영웅담론 글쓰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영웅담론을 답습하는 아일랜드 문예부흥론자들의 글쓰기를 거부한다. 그의 반영웅담론은 식민지배민이나 그 후손과는 다른 피지배민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작은 구름」에 묘사된 반영웅적인 인물은 독자를 낙담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독자는 웃으면서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다. 영웅 엘리야와 비교되는 반영웅적인 인물인 챌들러의 모습을 그리다보면 작품의 코믹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조이스가 이 작품에서 의도한 것이다. 『율리시스』가 코믹한 소설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독자는 블룸(Bloom)을 호머(Homer)의 영웅인 율리시스 장군과 비교하면서 읽을 때, 코믹함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작은 구름」도 챌들러를 엘리야와 비교할 때, 독자는 웃으면서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다. 챌들러의

인생이 낙담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이 작품을 코믹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제목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이 조이스와 독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려대)

인용문헌

- Booth, Wayne C. *The Rhetoric of Fiction*. Chicago: U of Chicago P, 1961.
- Cope, Jackson I. *Joyce's Cities: Archaeologies of the Soul*.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P, 1981.
- Eide, Marian and Vicki Mahaffey. "The Small Light in 'A Little Cloud'."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 Ed. Vicki Mahaffey. Syracuse: Syracuse UP, 2012. 164-87.
- Fargnoli, A. Nicholas and Michael Patrick Gillespie. *Critical Companion to James Joyce: A Literary Reference to his Life and Work*. New York: Facts on File, 2006.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2.
- Gordon, John. "'A Little Cloud' as a Little Cloud." *New Perspectives on Dubliners*. Eds. Mary Power and Uli Schneider. Amsterdam & Atlanta, GA: Rodopi, 1997. 167-80.
- Joyce, Jam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2000. Abbreviated as *D*.
- _____. *Finnegans Wak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2.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and Faber, 1975. Abbreviated as *SL*.
-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Joyce, Stanislaus. "The Background to 'Dubliners'." *The Listener* 51 (1954): 526-27.
- Kearney, Richard. "Myth and Motherland." *Ireland's Field Day*. London: Hutchinson, 1985. 59-80.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Joyce's Dubliners*.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03.
- O'Grady, Thomas B. "Little Chandler's Song of Experience." *James Joyce Quarterly* 28.2 (1991): 399-405.

- Peake, C. H.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Platt, L. H. "The Voice of Esau: Culture and Nationalism in 'Scylla and Charybdis'." *James Joyce Quarterly* 29 (1992): 737-50.
- Potts, Willard. *Joyce and the Two Irelands*. Austin: U of Texas P, 2000.
- Reynolds, Mary T. *Joyce and Dante: The Shaping Imagination*. Princeton UP, 1981.
- Spoor, Robert. "'Una Piccola Nuvoletta': Ferrero's *Young Europe* and Joyce's Mature *Dubliners* Stories." *James Joyce Quarterly* 24.4 (1987): 401-10.
- Tennyson, Alfred Lord. "Ulysse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Eds. M. H. Abrams et al. Vol. 2. 5th ed. New York: Norton, 1986. 1108-10.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8.
- Torchiana, Donald T. *Backgrounds for Joyce's Dubliners*. Boston: Allen & Unwin, 1986.
- Watson, G. J. *Irish Identity and the Literary Revival: Synge, Yeats, Joyce, and O'Casey*. London: Croom Helm, 1979.
- Weir, David. "'A Little Cloud': New Light on the Title." *James Joyce Quarterly* 17 (1980): 301-02.
- _____. "Meditation Structure in 'A Little Cloud'." *James Joyce Quarterly* 14.1 (1976): 84-87.

Abstract

The Title and Heroic Discourse in “A Little Cloud”

Seokmoo Choi

As one of the short stories in *Dubliners* with which Joyce was completely contented, “A Little Cloud” is quite unique in that its title has attracted a wide range of critical attention for a long time. The title has been understood mainly in terms of specific characters, allusions from literary works, and a metaphor with negative implication. According to our understanding of the title, the story may be read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Without taking into account Ireland’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many critics have read the story, assuming that the title is from “1 Kings” of the Bible, where Elijah sees “a little cloud out of the sea, like a man’s hand.” As a writer from a colonized country, Joyce was aware of the role of heroic discourse, which was appropriated to boost and consolidate the Western imperial project. In “A Little Cloud” Joyce challenges the heroic discourse which glorifies heroes like Elijah. While reminding us of Elijah, Chandler is comically described as an anti-heroic man who cannot escape from his dry and monotonous life far from performing heroic deeds.

■ Key words: James Joyce, *Dubliners*, “A Little Cloud,” heroic discourse, anti-heroic discourse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작은 구름」, 영웅담론, 반영웅담론)

논문접수: 2016년 5월 31일

논문심사: 2016년 6월 17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20일